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0 | 12 | 제133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7.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대림 제3주일 (12월 13일)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 1,19-28)



빛의 증인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 1,6-8)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전해 줍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백성들에게 예고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빛의 증인이 된 그는 어둠 속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를 찾아 오시는 가장 큰 희망이신 분을 알려주었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루실 일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어 저희 주인이 되소서.
- 주님, 제 마음의 귀로 당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यो?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당신은 누구요?" (요한 1,19)

-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 나는 세상에 주님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복음 나누기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을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루가 7,28; 참조 마태 11,11)고 하신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요한을 왜 높게 평가하시는지 알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루살렘의 정치계와 종교계는 요한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파견된 이들은 요한이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예언자인지 묻는데. 이 질문은 요한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야인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지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요한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을 과대포장하지 않는다.

요한의 특별함은 자신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잘 수행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데 바른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 3,7-8)고 외쳤다. 요한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의 말을 숨기지 않는다. 요한은 놀랄 만큼 균형 있는 분이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대림 제4주일(12월 20일)
예수님의 탄생 예고
(루카1,26-38)



하느님의 거처가 되신 마리아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팔수도회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26.27.30-31)

오늘 전례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가난한 시골 나자렛 마을의 마리아는 천사의 예고에 놀라워하면서도 하느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로써 마리아 안에 하느님 아드님의 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아름답고 용기 있게 응답한 마리아를 우리 신앙 여정의 모범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 뜻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 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6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27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28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29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31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32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33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36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루카 1,30)

지금 내가 마주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나누기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탄생 예고 이야기에서 성모 마리아의 특징은 '말씀을 듣는 분'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전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종이라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절로 저항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졌던 장애를 극복하며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후에야 말씀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밝히듯이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이로 여기고 있었다. 처음엔 은총이 가득하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 곧 은총이 가득하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을 곰곰히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후에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 마리아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자신에게 태어날 수 없다고 여긴다. 가브리엘 천사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보게 한다. 노년에 잉태한 엘리사벳 소식을 전하며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자라나게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가 되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3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코로나' 보다 더 강한 소공동체의 힘

- 구암동 본당 구역분과장 손점숙 누실라 -

'구암동 본당은 주택으로 둘러싸여 옛날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젊은이들은 소수이고 어르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소공동체 모임이 중단되었지만, 틈새를 이용해 신앙의 생기를 본당 안에 조금이라도 불어 넣고자,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반장들과 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둘러싸인 구암동은 재래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구역 2반은 구암동 재래시장을 끼고 있어 대부분의 반원들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반장 주임순(가밀라) 자매님, 총무 이재복(마리아)자매님을 비롯하여 10여 세대 정도가 반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하지 못하고 상인이라 마스크를 쓰고 만날 수밖에 없지만, 시장 안에서 마주하는 반원들끼리 신앙생활과 삶에 힘이 되는 덕담들을 주고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가톨릭 공동체의 사랑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고객들의 한숨과 불평을 감내해야 하는 상인들의 고초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올해 첫영성체를 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챙기고, 다문화 가정을 돌보며,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어르신들께 주보를 전해드리려 본당 소식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본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본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거리는 두고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에는 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가게에서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여 얼마 전 신·구약을 완필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구역분과에서 실시하는 본당 성전소독과 청소, 미사 전 열 체크 및 손 소독, 미사 참여자 체크 등에도 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어려운 때, 코로나보다 더 강한 신앙의 힘으로 힘든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1구역 2반 공동체에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길 청해봅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크고작은 사랑을 실천해나가는 구암동본당 구역분과의 노력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7. 장애요소

(3) 본당 공동체나 구역·반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

- 1) 공동체 책임자들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부족합니다.
- 2) 공동체 책임자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거나 막연하게 설명합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자들을 교육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 3) '선교의 공동체' 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친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 4) 사귄다와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의 힘을 깨닫지 못해서 본당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 5) 선교하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 6)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견하셨다는 '파견 받은 사도'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 7) '성당만 나오면 된다. 본당 안에서 활동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